

기아차 광주공장發 지역경제 숨통 트이나

기아차, 해외시장 위기 극복 총력전...전부분 수출 확대 올인 광주공장, 쏘울·셀토스 등 주력 모델 생산...가동률 증가 예고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자동차 시장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수출과 현지판매, 생산 등 전 부분에 걸쳐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수출 주력 모델 상당수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아차의 조치가 있던 공장가동 중단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는 광주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지 경제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 고객 맞춤형 판매 프로그램과 판매 딜러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공장 수출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송호성 기아차 사장은 평택에서 수출을 독려하고 차량 품질을 점검하기도 했다.

올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침체에 빠진 상태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세계 자동차시장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올해 승용차 판매가 2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전망이 밝지 않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우선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내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 차량에 대한 재고 관리 및 품질 점검을 비롯해 생산 라인부터 해상운송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품질향상 활동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특히 기아차는 광주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쏘울과 셀토스, 스포티지 등 해외 인기 차종들이 적기에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재고·선적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유럽은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된 만큼 쏘울EV, 니로EV 등 친환경차 공급을 원활히 해 판매 확대를 도모한다.

동남안 광주경제는 지역 산업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도미노 섀다운' 여파를 면치 못했다.

속도를 내 올해 유럽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개발, 하반기 독일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제조사 자동차를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는 미국에서는 딜러를 통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전체 미국 딜러의 50%가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연말에는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제조업 총생산액의 30% 상당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섀다운 불길'이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250여개 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광주 제조업 관계자는 "기아차에 해외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면 광주에서 생산하는 수출 주력 모델의 생산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며 "섀다운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영세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광주2공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29일도 휴업에 들어가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3공장 대형버스 라인에 대해서도 휴무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14일간 부분 휴업을 한 이후 반복된 휴업이 반복돼 수만대의 감산 피해를 입었다.

광주 제조업 총생산액의 30% 상당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섀다운 불길'이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250여개 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기아차의 이번 해외시장 판매·수출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수출 주력 모델을 생산하는 광주지역 경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제조업 관계자는 "기아차에 해외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면 광주에서 생산하는 수출 주력 모델의 생산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며 "섀다운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영세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8.31 (+8.67)	↓ 금리 (국고채 3년) 0.856 (-0.012)
↑ 코스닥 716.02 (+7.26)	↑ 환율 (USD) 1230.90 (+0.60)

지갑 닫은 가계...더 커진 빈부격차

1분기 소비지출 전년비 6% ↓...17년만에 최대폭 하락 1분위-5분위 가구 월소득 966만원 차...전년비 6.3% ↑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올해 1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했다. 이번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1분기 동안 급격히 감소한 소비지출은 의류·신발(-28.0%), 교육(-26.3%), 오락·문화(-25.6%)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허리띠를 가장 크게 졸라맨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48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 줄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5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46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기부금 등 비소비지출은 3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 1분기(1~3월)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7%(1만9000원) 줄었다. 이는 2017

년 1분기(-1.9%) 이후 3년 만에 첫 감소다.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등 소비지출과 자산 구입이 아닌 지출을 뜻한다. 항목별로 보면 종교시설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이 10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7%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운영이 중단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경조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간 이전지출도 10.1% 감소한 2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한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어 소득 격차는 966만원으로 벌어졌다.

저소득가구는 근로소득이, 고소득가구는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

1~3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3.3%, -2.5%, -4.2%씩 각각 감소했다. 4~5분위 가구는 사업소득이 -12.3%, -1.3% 각각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1일 광주신세계 1층 매장에 열린 '전남 명품 특산물 직거래 상생장터'를 찾은 고객들이 전남 우수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 특산물 170개 품목 '착한 가격'

전남도-광주신세계 제휴 28일까지 직거래 상생장터

광주신세계가 전남도와 손잡고 올 들어 두 번째 '명품 특산물 직거래 상생장터'를 21~28일 연다.

광주신세계는 이 기간 동안 1층 매장에서 전남 20개 시·군 26개 농가가 참여한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여수 돌산갓김치' '순천 전통된장' '나주알스트로메리아꽃' '장성 삼채 낙지젓갈' '곡성 백세미쌀' '장흥 모링가 분말' 등 170여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전남쌀 500g을 매일 100명 선착순 증정한다. 전남도는 침체된 농어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신세계 뿐만 아니라 서울·대구 등 다른 지역 신세계백화점에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

광주신세계와 전남도는 시·군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5일 맺을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소기업 불공정 무역 피해 소송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면 최대 50%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

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

대상이 되는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백기용 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여 프로골퍼 최혜진 후원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여자골프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혜진 선수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혜진 선수는 2017년 KLPGA 무대에서 신인답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아마추어 신분에서 시즌 2회 우승과 'US 여자오픈'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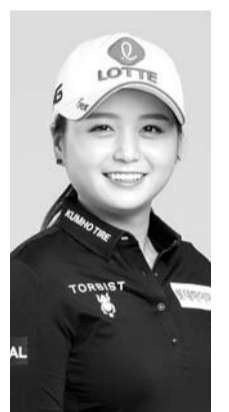
1995년 박세리 선수의 4승, 1999년 임서현 선수의 2승 이후 18년만에 KLPGA '아마추어 다승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정식 프로에 데뷔한 뒤 2018년 대상과 신인상을 동시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도 대상과 상금왕 등을 비롯해 6개 부문에 독실히 전광왕을 차지하는 등 정상급 선수로 떠올랐다. 아마추어 포함 현재 통산 9승을 기록중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고 있다.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최 선수는 매 경기마다 우측 옷깃부분에 금호타이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금호타이어는 공식 후원사로 최 선수의 TV 및 인쇄광고 촬영 권리 확보, 홈페이지와 SNS 홍보 활동, 금호타이어 주관행사 초청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최혜진 선수는 데뷔 때부터 국내대회 우승을 휩쓸고 있어 향후 글로벌 진출에 따라 홍보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골프 팬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다시 각인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oxe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